

## 目 次

東洋古典譯註叢書를 발간하면서  
譯註 禮記集說大全 凡例  
참고문헌

### 《譯註 禮記集說大全 1》

禮記集說 序 .....	1
禮記集說大全 凡例 .....	9
禮記集說大全 總論 .....	41
曲禮 上 第1 .....	55
曲禮 下 第2 .....	285

## 禮記集說 序

前聖<sup>1)</sup>繼天立極<sup>2)</sup>之道는 莫大於禮하고, 後聖垂世立教之書도 亦莫先於禮하니, 禮儀三百과 威儀三千<sup>3)</sup>이 孰非精神心術之所寓리오. 故로 能與天

1) 前聖과 後聖 : 前聖과 後聖은 문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전성은 伏羲 · 神農 · 黃帝 · 堯 · 舜 · 禹 · 湯을 가리키며, 後聖은 文王 이후의 성인을 가리킨다. 이에 대하여는 《孟子》의 다음 인용부분을 참고하기 바란다. “맹자가 말했다. 순임금은 諸馮에서 태어나 負夏로 옮기셨다가 鳴條에서 돌아가셨으니 東夷人이다. 文王은 岐周에서 태어나 畢郢에서 돌아가시니 西夷人이었다. <이 두 분 사이에> 지역적 거리가 천여 리나 되며 세대의 차이가 천여 년이나 되지만 뜻을 얻어 <그 도를> 중국에 펼친 것은 부질을 합한 것처럼 똑같았다. 따라서 앞의 성인과 뒤의 성인이 추구했던 道는 동일한 것이었다. [孟子曰 舜生於諸馮 遷於負夏 卒於鳴條 東夷之人也 文王 生於岐周 卒於畢郢 西夷之人也 地之相去也千有餘里 世之相後也 千有餘歲 得之行乎中國 若合符節 先聖後聖 其揆一也]” 《孟子》〈離婁章句 下〉

2) 繼天立極 : 繼天이라는 것은 하늘의 뜻을 잇는다는 것이니 바로 임금이라는 뜻이다. [繼天者 君也 君之所存者 命也] 《春秋穀梁傳注疏》 卷12

立極에는 ‘법도를 세우다.’와 ‘임금이 되다.’의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전자를 말한다. 이 말은 朱子의 《大學》 서문에 쓰이면서 널리 인용되었다. 아래에 주자의 설명을 전재한다. “繼天立極에 대하여 문의하였다. 주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늘은 다만 많은 인물을 낳고 그들에게 많은 도리를 부여한다. 그러나 하늘은 스스로 행할 수는 없다. 그래서 반드시 성인을 얻어서 그가 修道立教하여 백성들을 교화한다. 이것이 소위 천지의 道를 마름질하여 만들고 천지의 도를 도와서 이룬다는 것이다. 즉 하늘이 할 수 없는 것을 성인이 하늘을 대신하여 행하는 것을 말한다.’ [問 繼天立極 曰 天只生得許多人物 與你許多道理然天却自做不得 所以必得聖人 爲之修道立教 以教化百姓 所謂裁成天地之道 輔相天地之宜是也 盖天做不得底 却須聖人爲他做也]” 《朱子語類》〈儒家類沈闡錄〉

3) 禮儀三百 威儀三千 : 《中庸》에 “크고 넘치도다. 禮儀가三百가지이며 威儀가三千가지로

地同其節<sup>4)</sup>이라.

前代의 聖人이 하늘의 뜻을 받들어 정해 놓은 準則 중에서 禮보다 더 큰 것이 없고, 후대의 聖人이 후세에 전하려고 가르침을 세운 책 중에서도 또한 禮書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禮儀三百 가지와 威儀三千 가지에서 어느 하나인들 〈성인의〉 정신과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것이 있겠는가. 이 때문에 〈禮가〉 天地와 더불어 능히 그 法度를 같이하는 것이다.

四代損益<sup>5)</sup>은 世遠經殘하야 其詳을 不可得聞矣라. 儀禮十七篇<sup>6)</sup>과 戴記

다.” 하였고, 그 注에 ‘禮儀는 經禮이고 威儀는 曲禮이다.’라고 하였다. [優優大哉 禮儀三百 威儀三千 禮儀 經禮也 威儀 曲禮也] 그리고 《禮記》에서 “經禮가三百 가지이고 威儀가 三千 가지이지만 결론은 誠이다.”라고 하였는데 정현의 注에 “經禮는 周禮를 말한다. 周禮는 六篇인데 그 속에 포함된 官이三百六十 가지이다.”라고 하였다. 이로 보면 經禮는 주례를 가리키고 威儀는 곡례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三禮辭典》에서는 “경례라는 것은 그 큰 대목을 가리킨 것이지 오직 주례만을 말한 것이 아니며, 곡례 역시 세 세한 예를 말한 것이니 삼백이니 삼천이니 한 것은 모두 많다는 것을 말한 것이지 예의 실제 가지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三禮辭典》 937면

4) 能與天地同其節 : 節은 마디이다. 마디는 節限 혹은 制限을 의미하며 달리 말하면 법도나 규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同節은 제한이나 법도를 같이한다는 것이다. 본래 同節이란 말은 《禮記》〈樂記〉에 보인다. 관련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禮는 천지와 더불어 節을 같이한다. 공영달 소 : ‘예가 천지와 더불어 제한을 같이한다고 한 것은 천지는 형태가 각각 높고 낮고 크고 적음이 있어 〈그런 모든 형태적 등급이 각각에 있어서〉 제한(법도)이 된다. 예는 준비와 귀천을 구분하니 〈천지가 높고 낮은 형태로서 제한이 된다는 점에서〉 서로 비슷하다. 이것이 바로 예가 천지와 더불어 법도를 같이한다는 것이다.’”[大禮與天地同節 疏 大禮與天地同節者 天地之形 各有高下大小爲限節 大禮 辨尊卑貴賤 與天地相似 是大禮與天地同節也]

5) 四代損益 : “四代는 虞·夏·商·周를 말한다. [三王四代唯其師 鄭玄注 四代虞夏殷周]” 《禮記注疏》 卷36 〈學記〉

損益은 増減을 뜻한다. 즉 “전왕조의 예를 바탕으로 현재에 알맞도록 빼고 더할 것은 더하는 일을 말한다. [王者 必因前王之禮 順時施宜 有所損益 卽民之心 稍稍制作 至太

四十九篇<sup>7)</sup>에 先儒가 表章庸學<sup>8)</sup>하야 遂爲千萬世道學之淵源<sup>9)</sup>하니, 其四十七篇之文은 雖純駁不同이나 然義之淺深同異는 誠未易言也라.

四代에 걸쳐 행해진 〈禮의〉 損益에 대해서는 연대가 오래되고 禮經이 殘缺되어 그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다. 《儀禮》 17편과 《戴記》 49편에서 先儒가 《中庸》과 《大學》의 〈두 편을〉 밖으로 드러내어 마침내 千萬世의 道學의 法統을 정하였다. 〈나머지〉 47편의 글은 편에 따라 純精하고 잡박한 것의 차이는 있지만 뜻의 얇고 깊음과 같고 다른 점에 대해서는 진실로 쉽게

平而大備]” 《漢書》 〈禮樂志〉

- 6) 儀禮十七篇 戴記四十九篇 : 본래 《大學》과 《中庸》은 朱子에 의해 《禮記》에서 분리되어 독립된 지위를 얻게 된 것인데, 여기에서 《儀禮》와 《禮記》를 함께 거론한 것은 《儀禮》는 단순히 예의 형식을 기술한데 반하여 《禮記》는 그것의 의미를 해설해 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둘이 서로 표리 관계를 이루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 7) 戴記四十九篇 : 《戴記》는 《禮記》를 말한다. 西漢의 戴德이 정리한 《大戴記》 85편을 그의 從子인 戴聖이 재차 49편으로 재정리한 것이 《小戴記》인데, 이 《小戴記》가 《禮記》이다. 《隋書經籍志》

그래서 《禮記》를 《小戴禮》 혹은 《戴禮》라고 별칭하기도 한다.

- 8) 表章庸學 : 《大學》의 성립에 대하여 주자는 〈大學章句〉序文에서 “天運은 循環하니, 모든 것은 반복된다. 따라서 宋나라의 德이 융성해져서 정치와 교육이 아름답고 밝게 되었다. 이에 河南程氏 두 夫子가 〈세상에〉 나와 孟氏의 道統을 이었다. 그리고 비로소 실제로 이 책(大學)을 존중하고 신봉하여 〈예기로부터〉 드러내고, 또 그 簡編의 차례를 바로잡아 본래의 뜻을 밝혔다. [天運循環 無往不復 宋德隆盛 治教休明 於是 河南程氏兩夫子出 而有以接乎孟氏之傳 實始尊信此篇而表章之 既又爲之次其簡編 發其歸趣] 《大學章句集註》”고 하였다. 따라서 表章은 《禮記》로부터 《大學》과 《中庸》을 분리해 내었다는 의미이고 先儒는 程子와 朱子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 9) 淵源 : 淵源이란 학맥이 서로 계승되는 것을 말한다. 道學의 淵源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道統이 정해졌다는 뜻이다. 주지하다시피 남송 호종 연간에 주자는 《禮記》에서 이 〈中庸〉과 〈大學〉 두 편을 뽑아서 《論語》 《孟子》와 함께 四書로 편제하였다. 주자는 《大學》을 曾子의 저작으로 《中庸》을 子思의 저작으로 생각하였는데 이렇게 주자가 사서를 편정한 의도는 유학의 도통이 孔子 → 曾子 → 子思 → 孟子로 전해졌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四書가 孔門 正統의 결정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자의 도통 의식이다. 오강원 역 《儀禮》 해제 73-74면

말할 수가 없다.

鄭氏<sup>10)</sup>는 祖讖緯<sup>11)</sup>하고 孔疏<sup>12)</sup>는 惟鄭之從하야 雖有他說이나 不復收載

- 
- 10) 鄭氏(127-200) : 鄭玄. 後漢 때 사람. 字는 康成. 山東省 高密 출생. 시종 在野의 학자로 지냈고, 제자들에게는 물론 일반인들에게서도 訓詁學과 경학의 시조로 깊은 존경을 받았다. 경학의 今文과 古文 외에 천문·역수에 이르기까지 광범한 지식욕의 소유자였다. 처음에 鄉嗇夫라는 지방의 말단 관리가 되었으나 그만두고, 洛陽으로 올라가 太學에 입학하였다. 그 후 馬融 등에게 사사하여, 《易》·《書》·《春秋》 등의 고전을 배운 뒤 40세가 넘어서 귀향하였다. 그가 떠날 때, 마옹이 “나의 학문이 정현과 함께 동쪽으로 떠나는구나.” 하고 탄식하였을 만큼 마옹의 인정을 받았다. 귀향 후 기난한 생활을 하면서 학문을 가르쳤으나, 44세 때에 환관들이 학자 등 반대당을 금고한 ‘黨錮의 獄’를 입고, 집안에 침거하여 연구와 저술에 몰두하였다. 14년 뒤에 금고가 풀리자 何進·孔融·董卓·袁紹 등의 초빙과, 만년에는 황제가 大司農의 관직을 내렸으나 모두 사양하고 연구와 교육에 한평생을 바쳐 수천 명의 제자를 거느리는 일대 학파를 형성하였다. 그는 고문·금문에 다 정통하였으며, 가장 옳다고 믿는 설을 취하여 《周易》·《尚書》·《毛詩》·《周禮》·《儀禮》·《禮記》·《論語》·《孝經》 등에 주석을 하였고, 《儀禮》·《論語》의 定本을 만들었다. 그러나 그의 저서 중 완전하게 현존하는 것은 《毛詩》의 箋과 《周禮》·《儀禮》·《禮記》의 주해뿐이고, 그 밖의 것은 단편적으로 남아 있다. 그 잔여 부분은 청나라 袁鈞의 《鄭氏佚書》에 실렸다. 또 그의 《論語》 주석의 일부가 근래 新疆維吾爾自治區의 당나라 시대 무덤에서 출토되었다.
- 11) 祖讖緯 : 鄭玄의 《禮記注》가 譲緯를宗旨로 하였다는 것은 경서의 주석에 있어서 참위를 이론적 바탕으로 하여 경서를 주해하였다는 뜻이다. 兩漢시대의 경학은 대략 齊學과 魯學으로 대별되었는데 특히 경전의 해석에 譲緯를 수용한 齊學이 가장 번성했다. 齊學은 陰陽으로써 災異를 설명하고 春秋로써 時事를 추론하였는데 이것이 이른바 通經致用(경서의 해석을 통해서 현실적 쓰임에 이바지한다.)이었다. 다시 말해서 음양과 춘추가 해석의 틀이 되었는데 음양은 天意를 해석해 내는 방법이었고, 春秋는 모든 일의 기준이었다. 이렇게 된 것은 경학의 해석을 바탕으로 한 이론이 아니면 임금을 설득할 수가 없었으며, 임금 역시도 천명을 받았다는 이론적 설명이 없이는 임금 자리에서 편안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늘과 인간의 관계는 전국시대부터 진나라를 거쳐 한나라 때까지 당시 사상계가 당면한 최대의 과제였으며, 새로운 정치제도와 문화이상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한 무제는 科舉에 “三代의 天命을 받았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災異와 같은 변고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가.”라는 문제를 내는 등, 天道와 性命에 관한 이론적 해석을 요구하였으며, 이러한 요구 증대는 한나라에

하니, 固爲可恨이라. 然이나 其灼然可據者는 不可易也라. 近世應氏集解<sup>13)</sup>가 於雜記大小記等篇에 皆闕而不釋하니 噎라 慎終追遠이 其關於人倫世道가 非細故니 而可略哉아.

鄭氏는 〈예기의 注를 쓰면서〉 譏緯의 설을 祖述하였고, 孔疏는 오직 鄭玄의 설만을 따르고는, 비록 이와 다른 학설이 있더라도 모아서 싣지 않았으니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의 疏 가운데서 또렷이 典據가 될 만한 것은 따르지 않을 수 없다. 近世에 應氏가 지은 《禮記纂義》에는 雜記와 哀服大記와 哀服小記 등의 편은 모두 빼놓고 注釋을 달지 않았다. 아! 죽은 이를 장사지내고 먼 조상을 추모하는 일은, 인륜과 世道에 관련됨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닌데, 생략해서야 되겠는가.

서 형이상학에 대한 연구 수요의 증대로 연결되었다. 그리고 譏緯를 수용한 齊學은 이런 측면에 있어서 상당한 성과를 축적하고 있었기 때문에 兩漢 經學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요인이 되었다. 또한 참위문헌에는 반드시 해설이 필요하였는데 이런 해설은 또한 家法章句의 형식을 따랐다. 즉 다른 경서를 주석하는 방식으로 참위문헌을 주석했으며, 또 참위설로 경서를 해석하는 현상도 생겨났다. 따라서 참위서와 장구의 학문은 함께 발전하게 된 것이며 나아가 경서를 주석하면서 참위서를 인용하고, 참위서를 해석하면서 또한 경서를 끌어들이기도 하였다. 鄭玄은 《洛書》·《易緯》·《尚書緯》·《詩緯》·《禮緯》·《禮記默房》·《樂緯》·《春秋緯》·《孝經》·《尚書中候》 여러 책에 주석을 내었는데 그가 주석한 經書와 주석한 緯書는 모두 經과 緯로 서로 증명해서 참위문헌에 대하여 계통적 정리를 완성하였다. 徐興无 《讒緯文獻與漢代文化構建》 65-70면

12) 孔疏 : 孔穎達(574-648). 당나라 衡水 출생. 자는 仲達이다. 공자의 32세 손으로 어려서부터 영민하였다. 《春秋左傳》·《鄭氏尚書》·《王氏易》·《毛詩》·《禮記》에 능통하였으며 算數와 曆書도 잘하였고 문장도 능했다. 隋나라 煙帝 때 明經科에 급제하여 관계에 나갔으며, 당나라의 太宗에게 중용되어 國子博士를 거쳐 국자감의 祭酒(좨주)·東宮侍講 등을 지냈다. 문장 천문 수학에 능통하였으며, 魏徵과 함께 《隋書》를 편찬하였다. 당태종의 명에 따라 고증학자 顏師古 등과 더불어 五經 해석의 통일을 시도하여 《五經正義》 170권을 편찬하였다. 孔疏는 공영달의 소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鄭玄의 주를 해설한 공영달의 《禮記正義》를 가리킨다.

13) 應氏集解 : 應氏集解는 應鏞이 편찬한 《禮記纂義》를 말한다.